7일 Market Index
코스피 2722.67 (+33.17)
코스닥 866.18 (+15.43)
금리(국고채 3년) 3.308 (-0.037)
환율(원·달러) 1365.30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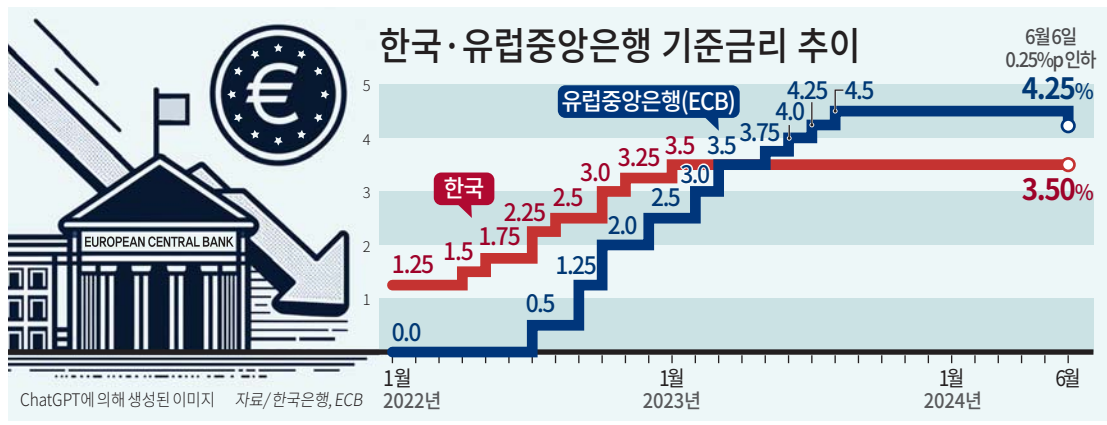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의협, 총파업 가결 "18일 집단휴진" 02

유럽, 금리인하 스타트… 韓 "물가 불안에 빨라야 10월"

ECB, 기준금리 0.25%p↓
캐나다도 4.75%로 내려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감
韓, 물가흐름 더 지켜봐야
농산물·가스 변동성 주목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 등 주요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대·내외적으로 물가 불안 요소가 많아 물가가 목표치(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인하를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시점을 10월 이후로 전망했다. 일부에선 물가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해를 넘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자영업자 등 고금리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ECB는 지난 6일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50%에서 4.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5일 캐나다중앙은행(BOC)도 기준금리를 연 5%에서 4.75%로 0.25%p 내렸다.

◆ 유럽·캐나다 0.25%p 인하

유럽과 캐나다가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물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 10월 10.6%까지 오르다가 2023년 6월 5.5%, 올해 5월 2.6%를 나타냈다.

당시 ECB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2022년 6월 0%에서 2023년 9월 4.5%까지 끌어올린 뒤 9개월 간 금리를 동결했다. 크리스티니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p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며 "미래 전망(물가 둔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에 통화정책 제한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도 2022년 6월 8.1%까지 오른 뒤 2024년 4월 2.7%로 낮아졌다.

캐나다중앙은행도(BOC)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2022년 1월 0.25%에서 2023년 7월 5%까지 4.75%p 인상한 뒤 11개월간 해당 금리를 유지했다. 티프 맥클럼 BOC총재는 "최근 수개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란 확신이 강화됐다"며 "우리의 확신이 지속된다면 금리의 추가 인하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 한국, 물가변동성 커…10월 인하 예상

한은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물가는 유럽과 캐나다만큼 낮아졌지만,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까지 오른 뒤 올해 5월 2.7%를 기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국제유가 외에도 농산물, 도시가스의 물가상승 영향이 두드러진 편이다.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4월 기준 농산물가격이 1년전과 비교해 21.1%, 도시가스가격이 6.4% 뛰었다. 유럽의 농축수산물이 2.1%, 천연가스가 -6.3%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수준이다.

현재 유가와 달리 천연가스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용량이 적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유독 물가흐름의 변동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영향을 받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외 경기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치에 수렴해 가는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시기를 10월 이후로 전망한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8%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5% 가량은 식량 생산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각종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활동이 돌고돌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된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식품 관련 유관산업에 변혁을 주기 위해 '2024 푸드이노베이션포럼'의 주제를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로 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지속가능한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주 제 :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14:00~18:00 |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등록 110,000원.
· 문 의 :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2면에 계속〉

metro

개발부터 생산까지… 현대차, 수소사회 성큼

모비스 수소사업 인수 완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일원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수소 솔루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를 완료하면서 수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해 수소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9일 현대모비스로부터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지난 2월 R&D과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던 기존 수소연료전지사업을 통합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인수 절차 마무리로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 관련 설비, 자산, R&D, 생산 품질 인력 등을 한곳으로 모아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로 현대차는 R&D 본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 내에 수소연료전지공정품질실을 신설하고, 제조 기술과 양산 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비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술 경쟁력과 생산 품질을 높이고, 수소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해 수소 생태계 실현을 가속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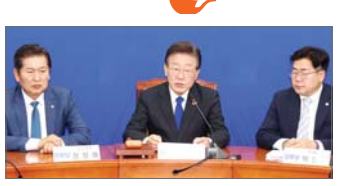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일원화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다. 현대차는 2025년 넥쏘 후속 모델을 출시하고 발전, 트램, 항만, 선박, 미래 항공모빌리티(AAM) 등 비차량 분야에서도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수소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 연결로 수소 사회 전환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소에너지는 청정하고 무한하며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환경 문제와 에너지 수급, 자원 고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를 지목하며 1998년 수소 관련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2000년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시범사업에 참여해 싼타페 수소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연료전지 분야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2004년에는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스택의 독자개발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야, '감세 경쟁' 본격화… 종부세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 /사진 뉴시스
▲ 민주당, 대선 출마하는 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헌 개정 추진
▲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출방식·지도체계 변경 방안 논의
▲ 한미, 10~12일 워싱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3차 협상

▲ 나경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 /사진 뉴시스
▲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국회 예산 협조부터 '산 넘어 산'